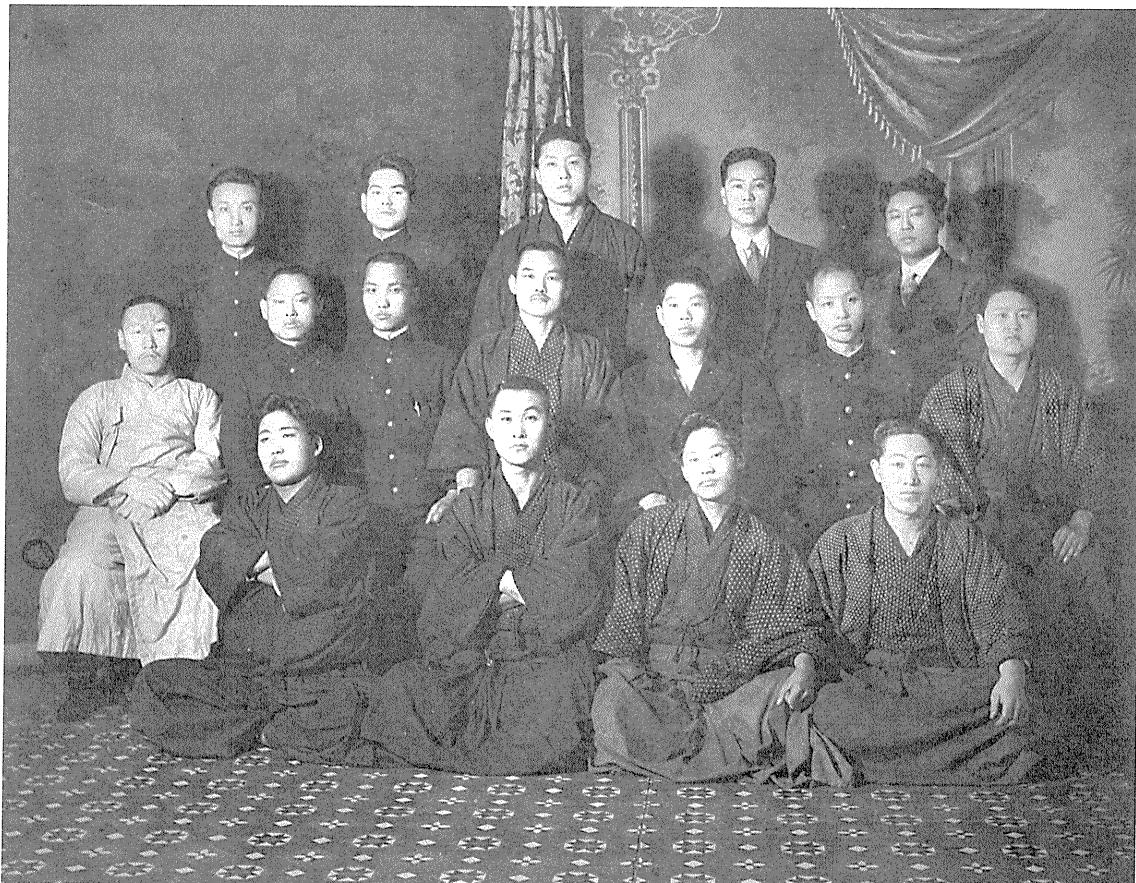


**2・8独立宣言第 102 周年記念式**

**2021. 2. 8**



**大韓民国国家報勲処・在日本韓国 YMCA**

## 2·8 독립선언 제 102 주년기념식 2·8 独立宣言 第 102 周年記念式

일 시 (日 時) : 2021 年 2 月 8 日 (月) 午前 11 時

장 소 (場 所) : 在日本韓国 YMCA 韓国文化館

사 회 (司 会) : 朱 宰 亨

在日本韓国 YMCA 総務

주 악 (奏 楽) : 金 叡 聲

東京韓国学校

※一同起立

개회송 (開會頌) 「2·8 独立宣言의 노래」 ..... 嚴瑞娟  
伴奏 : 金 叡 聲 東京韓国学校

※국민의례 (国民儀礼) ..... 国旗에 대한 敬礼, 愛國歌奉唱 ..... 一 同

### 國旗에 對한 盟誓

나는 자랑스러운 太極旗 앞에

自由롭고 正義로운 大韓民國의 無窮한 榮光을 為하여

忠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애국가 (愛國歌)

東海물과 白頭山이 마르고 長도록

하느님이 保佑하사 우리나라 萬歲

無窮花 三千里 華麗 江山

大韓사람 大韓으로 길이 保全하세

※추모 (追慕) ..... 殉国先烈과 先輩指導者들 ..... 一 同

개식사 (開式辭) ..... 鄭順葉

在日本韓国 YMCA 理事長

기념사 (記念辭) ..... 李南雨

大韓民國 國家報勳處 次長

기념사 (記念辭) ..... 姜昌一

駐日本國大韓民國大使館 特命全權大使

성경봉독 (聖經奉誦) ..... (詩編 33 編 8 節～12 節) ..... 吳 永 錫  
在日本韓國 YMCA 副理事長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찌어다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으나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全地は主を畏れ 世界に住むものは皆、  
主におののく。主が仰せになると、そのよ  
うに成り 主が命じられると、そのよう  
に立つ。 主は国々の計らいを碎き 諸国の  
民の企てを挫かれる。 主の企てはとこし  
えに立ち 御心の計らいは代々に続く。  
いかに幸いなことか 主を神とする國  
主が嗣業として選ばれた民は。

기 도 (祈 祷) ..... 牧師 趙 永 哲  
在日大韓基督教会 総会長

2·8 독립선언낭독 (2·8 独立宣言朗誦) ..... 金 建 學  
在日韓国留学生連合会 事務局長

치 사 (致 辞) ..... 金 元 雄  
光復会 会長

치 사 (致 辞) ..... 呂 健 二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 団長

특별순서 (特別順序) 『신 아리랑 / 新アリラン』 東京韓国学校  
独唱: 嚴 瑞 娟 指導: 裴 恩 卿 伴奏: 金 叢 聲

광 고 (広 告) ..... 司 会 者

※축 도 (祝 祷) ..... 牧師 金 鐘 基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名誉牧師

※후 주 (後 奏) ..... 金 叢 聲  
東京韓国学校

※만세삼창 (万歳三唱) ..... 鄭 昇 栄  
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中央本部 会長

◎通訳 曹 泳 石  
在日大韓基督教会 盤石教会 牧師

## 2·8독립선언 102주년 기념식 개식사

존경하는 강창일 주일본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님, 민단중앙본부 여건이 단장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참석은 못하셨지만, 2·8독립선언 10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본국에서 영상으로 인사를 전해주실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관님, 광복회 김원웅 회장님 그리고 올해는 영상으로 마음을 함께하시는 순국선열 유족 여러분, 서울YMCA 김인복 이사장님과 임원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본회 회원 여러분!

저는 이제 한 세기를 지나 두 번째의 매듭이 시작되는 2·8독립선언 102주년을 맞이한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엄중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뜻 깊은 기념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8독립선언에는 청년들의 의연한 기개와 정신이 서려 있습니다. 이는 청년 정신의 힘 있는 외침이었으며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결연한 축제와도 같은 선언이었기에 오늘날의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연대와 평화가 깃든 공동체의 힘을 이끌어내는 공존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8독립선언은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당리당략이나 국가이익만을 보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읽어내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관통하는 정의와 평화를 생각하는 한·일의 선각자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체포당한 학생들의 구제를 위해 헌신한 후세 타츠지 변호사를 비롯하여 대한의 독립운동을 이해하고 지원했던 일본인 지식인들과의 정신적 연대가 2·8독립선언의 정신에 깊이 각인되어 남아있으며, 정의와 자유의 세상을 지향하는 의지와 힘이 서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며 정의로운 역사의 기억과 함께 화해와 평화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의 자주성과 타국에 대한 연대성을 필요로 하며, 다문화 공생사회를 추구하는 용기가 절실힩니다.

재일본한국YMCA는 이러한 2·8독립선언의 고귀한 의지와 정신을 실천하며, 올바른 역사인식과 평화와 상생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서 지구촌 평화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뜻 깊은 2·8독립선언 제102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감수하신 우리 선열들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모두가 합심하여 코로나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경색된 한일관계의 회복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동행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개식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8일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정 순 엽

## 2・8 独立宣言 102周年 記念式 開式辞

尊敬する姜昌一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全権大使、民団中央本部呂健二団長！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のためこの場にご臨席はかないませんでしたが、2・8独立宣言102周年を記念するために本国より映像を通して挨拶をお送りくださった国家報勲処李南雨次長、光復会金元雄会長！そして今年はオンラインを通して心を共にする殉国先輩烈士のご遺族の皆様、ソウルYMCA金仁福理事長をはじめとする役員の皆様、この場にご臨席くださいましたご来賓と本会会員の皆様！

私は、1世紀が過ぎ2回目の節目となる、2・8独立宣言102周年を迎えた本日、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よるこの厳しい時代状況の中、感染対策を徹底的に施した上で、皆様と共にこの意義深い記念式を開催できますことをたいへん嬉しく光栄に存じます。

2・8独立宣言には青年たちの毅然とした気概と精神が込められています。それは、青年精神の力強い叫びであり、その情熱によってあたかも決然たる祝祭のような宣言でした。それ故、今日のコロナ時代が求めている連帯と平和の思いが込められた、共同体の力を引き出す共存の宣言だと言えましょう。

そのような意味で2・8独立宣言は、困難な時代状況の中でも党利党略や国家の利益だけを求めず、人類の普遍的価値を読み取り、人間の存在の意味を貫く正義と平和を考えていた韓・日の先覚者たちがいたからこそ可能な出来事であったと、私たちは覚えておかねばならないでしょう。

当時、逮捕された学生の救済のために献身した布施辰治弁護士をはじめ、独立運動を理解し支援した日本人知識人たちとの精神的連帯が2・8独立宣言の精神に深く刻まれ残っており、正義と自由の世界を目指す意志と力が込め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私たちにはコロナにより苦しんでいる人々を守り、人類共同体の普遍的価値を具現し、正義の歴史の記憶と共に和解と平和を将来の世代に引き継ぐ重大な責任があります。そのためには、自国の自主性と他国に対する連帯性を必要とし、多文化共生社会を追求する勇気が切実に求められています。

在日本韓国YMCAは、このような2・8独立宣言の高貴な意志と精神を実践し、正しい歴史認識と平和と共生のための交流の場としてグローバルな平和運動を着実に展開していきます。

意義深い2・8独立宣言102周年の記念日を迎え、祖国の独立のために多くの苦難を甘受した私たちの先輩烈士たちに改めて敬意を表するとともに、皆で心を合わせコロナ危機を賢く克服し、硬直した韓日関係の回復と互いを尊重し配慮する未来志向的な発展のために共に歩んで行けるよう祈りつつ、私の開式辞に代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21年 2月 8日  
在日本韓国YMCA  
理事長 鄭順葉

## 기념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재일동포와 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보훈처 차장 이남우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이지만,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뒤, 억압과 폭압에 맞섰던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당시 조선의 피 끓는 청년들이 다른 곳도 아닌 일제의 심장부에서 민족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던 2·8 독립선언 102주년입니다.

2·8 독립선언은 조국독립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만방에 알렸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날의 선언은 청년 유학생 600여명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국독립을 염원하는 겨레의 함성으로 이어지며 구국의 항일독립운동인 3·1 만세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체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박열, 김지섭, 서상한, 이봉창 의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2·8 독립선언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일제강점의 기나 긴 어둠을 걷어내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빛나는 역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부를 대표하여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위해 당당히 일어섰던 2·8 독립선언 선열들의 애국충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그리고 재일동포와 유학생 여러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숱한 가시밭길을 기꺼이 걸으시고, 심지어는 소중한 목숨까지 바치셨던 선열들의 생애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오늘 기념식이 그러한 책무를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머나 먼 이국땅에서 오로지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학생과 여성 독립운동가도 적극 발굴하여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일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하여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이봉창 의사님의 의거와 순국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 가 종식되어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뜻을 나누고 계승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늘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강창일 주일대사님과 재일본한국 YMCA 정순엽 이사장님, 그리고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여건이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8일  
국가보훈처 차장  
이남우

## 記念辞

尊敬する内外貴賓の皆様！そして在日同胞と留学生の皆様！

国家報勲次長李南雨と申します。

本来、直接うかがってご挨拶差し上げなくてはならないのですが、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により、やむを得ずこのように映像でご挨拶申し上げることとなりました。

本日は私たちの民族が日本帝国主義によって国権を奪われた後、抑圧と暴虐に立ち向かった抗日独立運動の歴史の中で非常に意義深い日です。

当時、血が滾った朝鮮の青年たちが、他でもない日本的心臓部において民族独立運動の火種を起こした2・8独立宣言から102周年を迎えました。

2・8独立宣言は祖国の独立に向けた確固たる意志を、私たちの民族はもちろん、世界万国に知らしめた重要な出来事です。

その日の宣言は、青年留学生600人余りの叫びに止まりませんでした。

祖国の独立を念願する民族の叫び声へつながり、救国の抗日独立運動である3・1万歳運動を引き起こしました。

さらに、民族独立運動の求心体である大韓民国臨時政府の樹立と朴烈、金祉燮、徐相漢、李奉昌義士など数多くの独立運動家の活躍につながりました。

このように、2・8独立宣言をはじめとする愛国先輩烈士たちの犠牲と献身があったからこそ、私たちは日本帝国主義による強制占領の長きにわたった闇を消し去り、ついに祖国独立の輝かしい歴史を勝ち取ることができました。

私は政府を代表して、そのような誇らしい歴史のために堂々と立ち上がった2・8独立宣言先輩烈士たちの愛国の思いに深い敬意と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

尊敬する内外貴賓、そして在日同胞と留学生の皆様！

国を取り戻すために、数多くの茨の道を喜んで進み、さらには大切な命まで捧げてくださった先輩烈士たちの生涯と精神を記憶し継承することは、私たちすべての責務です。

本日の記念式が、そのような責務をいま一度胸に深く刻む大切な契機となることを願いつつ、政府もまたそのためにあらゆる努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

併せて、遠い異国の地でひたすら祖国の独立のために献身された学生や女性独立運動家も積極的に発掘し、最高の礼遇を尽くす所存です。

来年は、天皇に手榴弾を投げて日本帝国主義を震え上がらせた李奉昌義士の義挙そして殉國から90周年となる年です。

一日も早く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が終息し、多くの方々と共にその意義を分かち合い、継承する場が設けられることを願います。

終わりに、厳しい環境においても、本日の意義深い行事を準備してくださった姜昌一駐日大使と在日本韓国YMCA鄭順葉理事長、そして在日本大韓民国民団呂健二団長をはじめとする関係者の皆様に心から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

辛丑年の年明けを迎え、すべての方々に常に健康と幸福が満ちるようお祈りいた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21年2月8日

国家報勲次長

李南雨

## 기념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정순엽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재일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뜻 깊은 2·8독립선언 제102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서니, 그날의 숭고한 외침이 가슴에 깊이 울려옵니다. 제가 주일대사로 부임하여 처음 참석하는 공식 행사가 2·8독립선언기념식이라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독립을 향한 투철한 의지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8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계신 동포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19년 오늘, 도쿄 조선YMCA회관에 모인 600여 명의 유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선언했습니다. 이날의 정신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우리 민족에게 강렬한 횃불이 되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에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뜨거운 열망대로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룩했습니다.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에 공헌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10여 년의 유학시절동안 종종 기념식전에 참석하여 유학생 선배님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계승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면서 한일 양국이 공생·공영하는 미래지향적 발전과 협력 관계가 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대화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8일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전권대사

강창일

## 記念辞

本日この場にご臨席くださった鄭順葉在日本韓国YMCA理事長をはじめとする内外貴賓と在日同胞の皆様！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

本日、意義深い2・8独立宣言第102周年記念を迎えてこの場に立つと、あの日の崇高な叫びが胸に深く響きます。私が駐日大使として赴任し初めて迎える公式行事が2・8独立宣言記念式であるということをたいへんに光栄に存じます。

この場を借りて、私たちの祖国のために献身した先輩烈士たちの愛國・愛族精神と独立に向けた透徹の意志に深い敬意と感謝を申し上げます。また、2・8独立宣言の精神を継承してこられた同胞の皆様にも心から感謝の思いをお伝え申し上げます。

1919年の本日、東京朝鮮YMCA会館に集った600人余りの留学生たちは、私たちの民族の自主独立の意志を世界万国に宣言しました。この日の精神は、日本の植民地統治を受けていた私たち民族にとってたいまつ明るい炎となり、3・1運動と大韓民国臨時政府の誕生への導火線となりました。

今日、私たち大韓民国は先輩烈士たちの熱望した通り正義と自由を基盤に民主化と先進化を成し遂げました。また、平和を愛する民族精神に基づいて、世界の平和と人類の文化に貢献する国家へと進んでいます。

私もまた、十余年におよんだ留学生活中、多くの記念式典に出席し、留学生の先輩たちの崇高な志を称え継承しようと努力してきました。

皆様、私たちは先輩烈士たちの崇高な精神を継承しつつ、韓日両国が共生・共栄する未来志向的発展と協力関係に向かって進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大統領もまた「韓日関係の未来志向的発展のために引き続き努力していく」とおっしゃいました。政府は、相互理解と信頼をもとに両国の未来志向的発展のための対話と努力を続けてまいります。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り、全世界が厳しくたいへんな時期を過ごしていますが、私たち国民の底力をもとに、この危機を克服し、新しい未来に向かって力強く跳躍す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

皆様とご家族、すべての方のご健康とご多幸をお祈りいた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21年2月8日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全権大使

姜 昌一

## 치사

일제하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정부 배상판결을 내린 한국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정부의 태도로 말미암아 한일관계가 어느 때보다 불편한 시기입니다. 재일본 한국인과 재일교포 여러분의 고충과 노고를 깊이 이해하며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일항쟁기, 이봉창 의사, 박열 의사, 김지섭 의사, 시인 윤동주 선생. 수많은 독립운동 선열들이 일본의 법정에서 사형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굴복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일본의 불법침략과 기만을 꾸짖으며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102년 전, 2.8 독립선언에 참가하신 유학생 선열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진 선각자적인 2.8 독립선언은 국내의 민족지도자들과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져 3·1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8 독립선언은 조선의 자주독립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고, 독립운동으로 건립될 국가를 민주주의에 입각한 신국가임을 명시하였으며, 5천년 문화민족의 후예답게 세계의 평화와 번영,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오늘 2.8 독립선언 기념식을 통해 선열들의 의로움을 배웁니다. 2.8 선언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항일 독립운동사의 소중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선언문에 서려 있는 식민지 조선청년들의 비장한 각오와 함께, 조선독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은 정의와 인도주의를 실현하려 했던 우리 민족 불굴의 자랑스런 DNA의 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지도부 열한 분 중에는 2.8 선언 이후 젊은 나이에 옥사를 하거나 옥병사를 한 분들이 계십니다. 송계백 선생과 최팔용 선생이입니다.

또 조국광복을 위해 치열하게 사신 분도 계십니다. 김철수 선생은 2.8 선언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공산주의운동을 통해 항일투쟁을 계속하셨습니다. 김상덕 선생 또한 중국 망명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이어 갔고, 해방 후에는 친일반민족세력을 일소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하려는 반민특위의 위원장을 하시다가 6.25 때 납북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이름 한 줄 남기지 않은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다수 대중이 애말로 역사의 발전과 변화는 주체입니다. 당시 YMCA 회관을 가득메운 유학생들, 학업을 중단하고 히비야 공원과 제국호텔로 몰려가 청년지도부의 석방과 조선독립을 외쳤던 이들이 있었기에, 또 이들을 도운 일본인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역사에 2.8은 거룩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숭고한 헌신이 있었기에, 2.8 선언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항일독립운동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시시때때로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협정문에는 일제가 자행한 반인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및 배상에 대하여 한 구절의 내용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침략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배상을 했습니다. 북한이 일관되게 사과와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뻔뻔스러운 태도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들이 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한일협정과 한일위안부 합의였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역대 친일정권들과의 야합적인 외교에만 익숙해 왔을 뿐, 눈부시게 깨어난 한국인들의 역사정의 실천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일본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에 굴복하고 외교를 구걸하는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독립운동 선열들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에도 예나 지금이나 깨어난 일본의 국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 간의 미래는 반드시 길이 있다고 봅니다.

2.8 선언 당시 일본의 잘못된 침략주의를 일찌감치 깨닫고 미래를 내다보며 인류평화와 정의 인도주의를 실천하며 식민지 조선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을 도운 일본의 지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2.8 기념일을 맞아 102년 전, 비록 소수였을지라도 한국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우려 했던 일본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역사의 이성을 믿고 기꺼이 변화에 동참하는 일본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8일  
광복회장 김원웅

## 致 辞

日本帝国主義下の強制徵用と日本軍性奴隸被害者に対して日本政府の賠償判決を下した韓国の裁判所の正義の判決を認めない日本政府の態度のゆえに、韓日関係はこれまでにない困難な時期を迎えていきます。在日韓国人、在日同胞の皆様のご苦労ご心労を深く思い、激励の言葉をお伝え申し上げます。

対日抗争期、李奉昌義士、朴烈義士、金祉燮義士、詩人尹東柱先生、数多くの独立運動先輩烈士たちが日本の法廷で死刑判決を受け刑場の露と消えました。しかし、その誰も屈服せず、たいへん堂々と日本の不法侵略と欺瞞を責め朝鮮独立の正当性を主張しました。

102年前、2.8独立宣言に参加なさった留学生先輩烈士たちもまた同様でした。敵の心臓部で鳴り響いた先覚者的な2.8独立宣言は、国内の民族指導者と学生たちに広く伝わり、3・1運動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ました。

2.8独立宣言は、朝鮮の自主独立だけを目的としておらず、独立運動によって建設される国家を民主主義に立脚した新国家であることを明示し、五千年におよぶ文化民族の末裔らしく、世界の平和と繁栄、人類文化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明らかに述べました。本日2.8独立宣言記念式を通して先輩烈士たちの義を学びます。2.8宣言は、3.1運動と大韓民国臨時政府の樹立につながる私たちの民族の抗日独立運動史の貴重な足がかりとなっています。

宣言全体に込められた植民地朝鮮の青年たちの悲壮な覚悟と、朝鮮独立のための勇気ある行動は、正義と人道主義を実現しようとしていた私たち民族が誇る不屈のDNAの表出に他なりません。青年指導部11人中、2.8宣言以降若い年齢で出獄後に病死した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宋繼白先生と崔八鎔先生です。

また、祖国独立のために激しく生きた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金皓寿先生は2.8宣言以降、中国に渡り、共産主義運動を通して抗日闘争を続けました。金尚徳先生もまた、中国亡命後も独立運動を継続しました。祖国解放後には、親日反民族勢力を一掃して歴史の正義を実現しようとする反民特委の委員長を務め、6.25（朝鮮戦争）の際に北に拉致されました。

しかし、歴史には、名前一行すら残されていない多くの方々がいます。名前のない多数の大衆こそ歴史の発展と変化の主体です。当時YMCA会館を埋め尽くした留学生、学業を中断し、日比谷公園や帝国ホテルに集まり、青年指導部の釈放と朝鮮独立を叫んだ彼らがいたからこそ、また彼らを助けた日本人の手があったからこそ、歴史的に2.8は、神聖な名前として記録されているのです。この方々の崇高な献身があったからこそ、2.8宣言は歳月を経た今も、抗日独立運動史において輝いているのです。

日本の菅首相はしばしば「韓日関係の基本は、1965年に締結された請求権協定」と主張しています。しかしその核心において日本帝国主義による強制占領の不法性を認めず、協定文には日本帝国主義が行った反人類的犯罪の真実究明、謝罪と賠償について一節の内容も載っていません。

第二次世界大戦後、日本はミャンマー、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ベトナム、マレーシアなど東南アジア諸国に侵略の不法性を認めて賠償をしました。朝日国交正常化交渉でも北側は一貫して謝罪と賠償を日本に要求しています。

しかし、日本は唯一韓国に対してだけ厚かましい態度で謝罪と賠償を拒否しています。

これは、これまで親日に根ざした政権が、民族の正当な権利を放棄してきたからです。その代表的な事例がまさに韓日協定と韓日慰安婦合意でした。

日本はこれまで、歴代親日政権との野合的な外交にのみ慣れてきて、目を見開き目覚めた韓国人の歴史正義実践の意志を過小評価しています。私たちが日本政府の高圧的な態度に屈して外交において物乞いする屈辱的な姿勢を見せるのは、独立運動先輩烈士たちの意に反することです。

それにもかかわらず、私は日本にも、昔も今も覚醒している日本国民がいると思っています。それ故、私は、韓日間の未来には必ず道が開けていると思います。

2.8宣言当時、日本の誤った侵略主義に早々と気づき未来を見据え、人類の平和と正しい人道主義を実践し、植民地朝鮮の学生たちの行動を助けた日本の知性がありました。

今日2.8記念日を迎え102年前、たとえ少数であっても、韓国人の境遇を理解して助けようとしていた日本人に感謝を申し上げます。私は歴史の理性を信じて喜んで変化に参加する日本国民の底力を信じ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21年2月8日  
光復会長 金元雄

## 치사

우리 民族史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2·8 独立宣言」으로부터 102 年을 기리는 記念式典에서, 在日本大韓民國民團을 代表해서 人事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荣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마다 記念式典을 開催하여 주신 在日本韓國 YMCA 関係者 여러분께 깊은 謝意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感染予防을 위해 인터넷 온라인 同時 中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大韓民國 政府 関係者 여러분을 비롯하여, 여러团体의 関係者 여러분께 깊은 敬意와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内外貴賓, 그리고 在日同胞 여러분,

아시다시피 2·8 独立宣言은 한달후에는 挙族的인 3·1 独立運動에 이어지고, 아시아各国의 独立運動에 이어지는 導火線이 되었습니다. 이 歷史的인 事実은 우리 在日同胞의 民族意識과 珍持를 불러 일으키는 契機가 되고 왔습니다.

오늘 自国, 自民族中心主義가 휘몰아 치는 國際情勢 속, 南北關係는 混迷하여, 韓日關係에 있어서는 더욱 出口가 보이지 않는 迷路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在日同胞의 生活을 위해 地域社會에 있어서 民間次元의 民間外交를 積極展開하여 韓日兩國의 相互理解 深化를 위한 役割을 짊어져 나가야 합니다.

内外貴賓, 그리고 在日同胞 여러분,

우리는 在日同胞 뿐만 아니라 韓日兩國의 次世代가 韓日의 새로운 時代를 創造 할 수 있도록 努力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記念式을 通하여 韓民族의 繁榮을 為해 先烈들의 崇高한 精神을 想起합시다.

在日同胞는 韓民族의 繁榮과 韓日關係의 再構築을 위하여 굳은 団結을 다짐하면서 人事에 갈음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2021年2月8日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  
團長 呂健二

## 致 辞

我が民族史に輝かしい足跡を残した「2・8 独立宣言」から 102 年を迎えることを称える記念式典において、在日本大韓民国民団を代表してご挨拶申し上げますことを限りない光栄に存じます。

まず、毎年記念式典を開催してくださいます在日本韓国 YMCA の関係者の皆様に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そして、コロナ感染予防のためオンライン同時中継を通して本式典にご臨席くださった大韓民国政府関係者の皆様をはじめとする諸団体の関係者の皆様に深い敬意と謝意を表します。

内外貴賓、そして在日同胞の皆様、

ご存知の通り、2・8 独立宣言は、一ヶ月後には挙族的な 3・1 独立運動に引き継がれ、アジア諸国の独立運動に続く導火線となりました。その歴史的な事実が私たち在日同胞の民族意識と誇りを呼び起こす契機をもたらしてきました。

今日、自国・自民族中心主義が吹き荒れる国際情勢の中、南北関係は混迷を深め、韓日関係においてはますます出口の見えない迷路に迷い込んでいます。しかし、このようなときこそ、私たちは在日同胞の生活のために地域社会において民間次元の民間外交を積極的に展開し、韓日両国の相互理解を深めるための役割を担わなくてはなりません。

内外貴賓、そして在日同胞の皆様、

私たちは在日同胞のみならず、韓日両国の次世代が韓日の新しい時代を創造できるように努力を続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本日の記念式を通じて、韓民族の繁栄のために、先輩烈士の崇高な精神を思い起こします。在日同胞は韓民族の繁栄と韓日関係の再構築のために固い団結を誓う契機とすることをお約束し、ご挨拶に代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21 年 2 月 8 日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  
団 長 呂 健 二

## 2 · 8 독립선언서 (2 · 8 獨立宣言書)

전조선청년독립단(全朝鮮青年獨立團)은 아이천만민족(我二千萬民族)을 대표(代表)하여 정의(正義)와 자유(自由)의 승리(勝利)를 득(得)한 세계만국(世界萬國)의 전(前)에 독립(獨立)을 기성(期成)하기를 선언(宣言)하노라.

사천삼백년(四千三百年)의 장구(長久)한 역사(歷史)를 유(有)하는 오족(吾族)은 실(實)로 세계최고 문명민족(世界最古文明民族)의 일(一)이라. 비록 유시호(有時乎) 지나(支那)의 정삭(正朔)을 봉(奉)한 사(事)는 유(有)하였으나 차(此)는 조선황실(朝鮮皇室)과 지나황실(支那皇室)과의 형식적 외교 관계(形式的外交關係)에 불과(不過)하였고 조선(朝鮮)은 항상(恒常) 오족(吾族)의 조선(朝鮮)이오 일차(一次)도 통일(統一)한 국가(國家)를 실(失)하고 이족(異族)의 실질적지배(實質的支配)를 수(受)한 사(事) 무(無)하도다. 일본(日本)은 조선(朝鮮)이 일본(日本)과 순치(唇齒)의 관계(關係)가 유(有)함을 자각(自覺)함이라 하야 일천팔백구십오년(一千八百九十五年) 일청전쟁(日清戰爭)의 결과(結果)로 일본(日本)이 한국(韓國)의 독립(獨立)을 솔선승인(率先承認)하였고 영(英), 미(米), 법(法), 덕(德), 아(俄)등(等) 제국(諸國)도 독립(獨立)을 승인(承認)할뿐더러 차(此)를 보전(保全)하기를 약속(約束)하였도다. 한국(韓國)은 그 은의(恩義)를 감(感)하야 예의(銳意)로 제반개혁(諸般改革)과 국력(國力)의 충실(充實)을 도(圖)하였도다. 당시(當時) 아국(俄國)의 세력(勢力)이 남하(南下)하야 동양(東洋)의 평화(平和)와 한국(韓國)의 안녕(安寧)을 위협(威脅)할새 일본(日本)은 한국(韓國)과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체결(締結)하야 일아전쟁(日俄戰爭)을 개(開)하니 동양(東洋)의 평화(平和)와 한국(韓國)의 독립보전(獨立保全)은 실(實)로 차(此) 동맹(同盟)의 주지(主旨)와 한국(韓國)은 더욱 그 호의(好誼)에 감(感)하야 육해군(陸海軍)의 작전상(作戰上) 원조(援助)는 불능(不能)하였으나 주권(主權)의 위엄(威嚴)까지 희생(犧牲)하야 가능(可能)한 온갖 의무(義務)를 다 하야써 동양평화(東洋平和)와 한국독립(韓國獨立)의 양대목적(兩大目的)을 추구(追求)하엿도다. 급기(及其) 전쟁(戰爭)이 종결(終結)되고 당시(當時) 미국대통령(米國大統領)루쓰별트씨(氏)의 중재(仲裁)로 일아간(日俄間)에 강화회의(講和會議) 개설(開設)될새 일본(日本)은 동맹국(同盟國)인 한국(韓國)의 참가(參加)를 불허(不許)하고 일아(日俄) 양국대표자간(兩國代表者間)에 임의(任意)로 일본(日本)의 한국(韓國)에 대(對)한 종주권(宗主權)을 의정(議定)하였으며 일본(日本)은 우월(優越)한 병력(兵力)을 지(持)하고 한국(韓國)의 독립(獨立)을 보전(保全)한다는 구약(舊約)을 위반(違反)하야 암약(暗弱)한 당시(當時) 한국황제(韓國皇帝)와 그 정부(政府)를 위협(威脅)하고 기망(欺罔)하야 「국력(國力)의 충실(充實)함이 족(足)히 독립(獨立)을 득(得)할 만한 시기(時期)까지라」는 조건(條件)으로 한국(韓國)의 외교권(外交權)을 탈(奪)하야 차(此)를 일본(日本)의 보호국(保護國)을 작(作)하야 한국(韓國)으로 하야곰 직접(直接)으로 세계열국(世界列國)과 교섭(交涉)할 도(道)를 단(斷)하고 인(因)하야 「상당(相當)한 시기(時期)까지라」는 조건(條件)으로 사법(司法), 경찰권(警察權)을 탈(奪)하고 경(更)히 「징병령실시(徵兵令實施)까지라」는 조건(條件)으로 군대(軍隊)를 해산(解散)하며 민간(民間)의 무기(武器)를 압수(押收)하고 일본군대(日本軍隊)와 현병경찰(憲兵警察)을 각지(各地)에 편치(遍置)하여 심지(甚至)에 황궁(皇宮)의 경비(警備)까지 일본경찰(日本警察)을 사용(使用)하고 여차(如此)히 하야 한국(韓國)으로 하여곰 전(全)혀 무저항자(無抵抗者)를 작(作)한 후(後)에 다소(多少) 명철(明哲)의 칭(稱)이 유(有)한 한국황제(韓國皇帝)를 방축(放逐)하고 황태자(皇太子)를 옹립(擁立)하고 일본(日本)의 주구(走拘)로 소위(所謂) 합병내각(合併內閣)을 조직(

組織)하야 비밀(秘密)과 무력(武力)에 리(裏)에서 합병조약(合併條約)을 체결(締結)하니 자(玆)에 오족(吾族)은 건국이래(建國以來) 반만년(半萬年)에 자기(自己)를 지도(指導)하고 원조(援助)하노라 하는 우방(友邦)의 군국적야심(軍國的野心)의 희생(犧牲)되엿도다.

실(實)로 일본(日本)은 한국(韓國)에 대(對)한 행위(行爲)는 사기(詐欺)와 폭력(暴力)에서 출(出)한 것이니 실(實)로 여차(如此)히 위대(偉大)한 사기(詐欺)의 성공(成功)은 세계홍망사상(世界興亡史上)에 특필(特筆)할 인류(人類)의 대욕치욕(大辱恥辱)이라 하노라.

보호조약(保護條約)을 체결(締結)할 시(時)에 황제(皇帝)와 적신(賊臣) 안인 기개대신(幾個大臣)들은 모든 반항수단(反抗手段)을 다하였고 발표후(發表後)에도 전국민(全國民)은 적수(赤手)로 가능(可能)한 온갓 반항(反抗)을 다하였으며 사법(司法), 경찰권(警察權)의 피탈(被奪)과 군대해산시(軍隊解散時)에도 연(然)하였고 합병시(合併時)를 당(當)하야는 수중(手中)에 촌철(寸鐵)이 무(無)함을 불구하고(不拘)하고 가능(可能)한 온갓 반항운동(反抗運動)을 다하다가 정예(精銳)한 일본무기(日本武器)에 희생(犧牲)이 된 자(者)이 부지기수(不知其數)며 이래(以來) 십년간(十年間) 독립(獨立)을 회복(恢復)하랴는 운동(運動)으로 희생(犧牲)된 자(者)이 수십만(數十萬)이며 참혹(慘酷)한 현병정치하(憲兵政治下)에 수족(手足)과 구설(口舌)의 탑제(搭制)를 수(受)하면서도 증(曾)히 독립운동(獨立運動)이 절(絕)한 적이 업나니 차(此)로 관(觀)하여도 일한합병(日韓合併)이 조선민족(朝鮮民族)의 의사(意思)가 아님을 가지(可知)할지라. 여차(如此)히 오족(吾族)은 일본군국주의적야심(日本軍國主義的野心)의 사기폭력하(詐欺暴力下)에 오족(吾族)의 의사(意思)에 반(反)하는 운명(運命)을 당(當)하였으니 정의(正義)로 세계(世界)를 개조(改造)하는 차시(此時)에 당연(當然)히 광정(匡正)을 세계(世界)에 구(求)할 권리(權利)가 유(有)하며 또 세계개조(世界改造)에 주인(主人)되는 미(米)와 영(英)은 보호(保護)와 합병(合併)을 솔선승인(率先承認)한 이유(理由)로 차시(此時)에 과거(過去)의 구악(舊惡)을 속(贖)할 의무(義務)가 유(有)하다 하노라.

또 합병이래(合併以來) 일본(日本)의 조선통치정책(朝鮮統治政策)을 보면 대 합병시(合併時)의 선언(宣言)에 반(反)하야 오족(吾族)의 행복(幸福)과 이익(利益)을 무시(無視)하고 정복자(征服者)가 피정복자(被征服者)의게 대(對)하는 고대(古代)의 비인도적정책(非人道的政策)을 응용(應用)하야 오족(吾族)의계는 참정권(參政權), 집회결사(集會結社)의 자유(自由), 언론출판(言論出版)의 자유(自由)를 불허(不許)하며 심지(甚至)에 신교(信敎)의 자유(自由), 기업(企業)의 자유(自由)까지도 불소(不少)히 구속(拘束)하며 행정(行政) 사법(司法) 경찰등(警察等) 제기관(諸機關)이 조선민족(朝鮮民族)의 인권(人權)을 침해(侵害)하며 공사(公私)에 오족(吾族)과 일본인간(日本人間)에 우열(優劣)의 차별(差別)을 설(設)하며 일본인(日本人)에 비(比)하야 열등(劣等)한 교육(敎育)을 시(施)하야써 오족(吾族)으로 하야곰 영원(永遠)히 일본인(日本人)의 피사역자(被使役者)를 성(成)하게 하며 역사(歷史)를 개조(改造)하야 오족(吾族)의 신성(神聖)한 역사적(歷史的), 민족적전통(民族的傳統)과 위엄(威嚴)을 파괴(破壞)하고 능모(凌侮)하며 소수(小數)의 관리(官吏)를 제(除)한 외(外)에 정부(政府)의 제기관(諸機關)과 교통(交通), 통신(通信), 병비제기관(兵備諸機關)에 전부(全部) 혹(或)은 대부분(大部分) 일본인(日本人)만 사용(使用)하야 오족(吾族)으로 하야곰 영원(永遠)히 국가생활(國家生活)의 지능(智能)과 경험(經驗)을 득(得)할 기회(機會)를 부득(不得)케 하니 오족(吾族)은 결(決)코 여차(如此)한 무단전제(武斷專制) 부정불평등(不正不平等)한 정치하(政治下)에서 생존(生存)과 발전(發展)을 향수(享受)키 불능(不能)한지라. 그 뿐더러 원래(元來) 인구과잉(人口過剩)한 조선(朝鮮)에 무제한(無制限)으로 이민(移民)을 장려(獎勵)하고 보조(補助)하야 토착(土着)한 오족(吾族)은 해외(海外)에 유리(流離)함을 불면(不免)하여 국가(國家)의 제기관(諸機關)은 물론(勿論)이오 사설(私設)

의 제기관(諸機關)에까지 일본인(日本人)을 사용(使用)하야 일변(一邊) 조선인(朝鮮人)으로 직업(職業)을 실(失)케 하며 일변(一邊) 조선인(朝鮮人)의 부(富)를 일본(日本)으로 유출(流出)케 하고 상공업(商工業)에 일본인(日本人)의계는 특수(特殊)한 편익(便宜)을 여(與)하야 조선인(朝鮮人)으로 하야곰 산업적발흥(產業的發興)의 기회(機會)를 실(失)케 하도다. 여차(如此)히 하방면(何方面)으로 관(觀)하야도 오족(吾族)과 일본인(日本人)과의 이해(利害)를 호상(互相) 배치(背馳)하며 배치(背馳)면 그 해(害)를 수(受)하는 자(者)는 오족(吾族)이니 오족(吾族)은 생존(生存)의 권리(權利)를 위(爲)하야 독립(獨立)을 주장(主張)하노라.

최후(最後)에 동양평화(東洋平和)의 견지(見地)로 보건대 그 위협자(威脅者)이던 아국(俄國)은 이의 군국주의적야심(軍國主義的野心)을 포기(拋棄)하고 정의(正義)와 자유(自由)와 박애(博愛)를 기초(基礎)로 한 신국가(新國家)를 건설(建設)하라고 하는 중(中)이며 중화민국(中華民國)도 역연(亦然)하며 겸(兼)하야 차차(此次) 국제연맹(國際聯盟)이 실현(實現)되면 다시 군국주의적침략(軍國主義的侵略)을 감행(敢行)할 강국(強國)이 무(無)할 것이다. 그러할진대 한국(韓國)을 합병(合併)한 최대이유(最大理由)가 이의 소멸(消滅)되상을 뿐더러 종차(從此)로 조선민족(朝鮮民族)이 무수(無數)한 혁명란(革命亂)을 기(起)한다 하면 일본(日本)의 합병(合併)된 한국(韓國)은 반(反)하야 동양평화(東洋平和)를 교란(攬亂)할 화원(禍源)이 될지라. 오족(吾族)은 정당(正當)한 방법(方法)으로 오족(吾族)의 자유(自由)를 추구(追求)할지나 만일(萬一) 차(此)로써 성공(成功)치 못하면 오족(吾族)은 생존(生存)의 권리(權利)를 위(爲)하야 온갓 자유행동(自由行動)을 취(取)하야 최후(最後)의 일인(一人)까지 자유(自由)를 위(爲)하는 열혈(熱血)을 천(濺)할지니 엇지 동양평화(東洋平和)의 화원(禍源)이 아니리오. 오족(吾族)은 일병(一兵)이 무(無)호라. 오족(吾族)은 병력(兵力)으로써 일본(日本)을 저항(抵抗)할 실력(實力)이 무(無)호라. 연(然)하나 일본(日本)이 만일(萬一) 오족(吾族)의 정당(正當)한 요구(要求)에 불응(不應)할진대 오족(吾族)은 일본(日本)에 대(對)하야 영원(永遠)의 혈전(血戰)을 선(宣)하리라.

오족(吾族)은 구원(久遠)히 고등(高等)한 문화(文化)를 유(有)하엿고 반만년간(半萬年間) 국가생활(國家生活)의 경험(經驗)을 유(有)한 자(者)이라. 비록 다년(多年) 전제정치(專制政治)의 해독(害毒)과 경우(境遇)의 불행(不幸)이 오족(吾族)의 금일(今日)을 치(致)하엿다 하더라도 정의(正義)와 자유(自由)를 기초(基礎)로 한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상(上)에 선진국(先進國)의 범(範)을 수(隨)하야 신국가(新國家)를 건설(建設)한 후(後)에는 건국이래(建國以來) 문화(文化)와 정의(正義)와 평화(平和)를 애호(愛護)하는 오족(吾族)은 반드시 세계(世界)의 평화(平和)와 인류(人類)의 문화(文化)에 공헌(貢獻)함이 유(有)할지라.

자(茲)에 오족(吾族)은 일본(日本)이나 혹(或)은 세계각국(世界各國)이 오족(吾族)의 계 민족자결(民族自決)의 기회(機會)를 여(與)하기를 요구(要求)하며 만일(萬一) 불연(不然)하면 오족(吾族)은 생존(生存)을 위(爲)하야 자유행동(自由行動)을 취(取)하야써 오족(吾族)의 독립(獨立)을 기성(期成)하기를 선언(宣言)하노라.

一九一九年二月八日

조선청년독립단(朝鮮青年獨立團)

右代表者

최팔용(崔八鏞)

이종근(李宗根)

김도연(金度演)

송계백(宋繼白)

이광수(李光洙)	최근우(崔謹愚)
김철수(金喆壽)	김상덕(金尚德)
백관수(白寬洙)	서 춘(徐椿)
윤창석(尹昌錫)	

## 결의문(決議文)

- 一. 본단(本團)은 일한합병(日韓合併)이 오족(吾族)의 자유의사(自由意思)에 출(出)하지 아니하고 오족(吾族)의 생존(生存)과 발전(發展)을 위협(威脅)하고 또 동양(東洋)의 평화(平和)를 교란(攬亂)하는 원인(原因)이 된다는 이유(理由)로 독립(獨立)을 주장(主張)함.
- 二. 본단(本團)은 일본의회(日本議會) 급(及) 정부(政府)에 조선민족대회(朝鮮民族大會)를 초집(招集)해야 해회(該會)의 결의(決議)로 오족(吾族)의 운명(運命)을 결(決)할 기회(機會)를 여(與)하기를 요구(要求)함.
- 三. 본단(本團)은 만국강화회의(萬國講和會議)에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를 오족(吾族)의 계도 적용(適用)하게 하기를 청구(請求)함. 우목적(右目的)을 달(達)하기 위(爲)하여 일본(日本)에 주재(駐在)한 각국대공사(各國大公使)의 계 본단(本團)의 주의(主義)를 각기정부(各其政府)에 전달(傳達)하기를 의뢰(依賴)하고 동시에(同時)에 위원이인(委員二人)을 만국강화회의(萬國講和會議)에 파견(派遣)함. 우 위원(右委員)은 기(既)히 파견(派遣)한 오족(吾族)의 위원(委員)과 일치행동(一致行動)을 취(取)함.
- 四. 전항(前項)의 요구(要求)가 실패(失敗)될 시(時)는 오족(吾族)은 일본(日本)에 대(對)하여 영원(永遠)의 혈전(血戰)을 선(宣)함. 차(此)로써 생(生)하는 참화(慘禍)는 오족(吾族)이 그 책임(責)에 임(任)치 아니함.

## 2・8 独立宣言書（日本語訳文）

全朝鮮青年独立団はわが二千万の民族を代表し、正義と自由の勝利を得た世界万国の前にわが独立を期成せんことを宣言する。

四千三百年の長い歴史を有するわが民族は、実に世界最古の民族の一つである。時には中国の正朔を奉じたことはあったが、これは両国皇室の形式的な外交関係に過ぎなかった。朝鮮は常にわが民族の朝鮮であり、いまだかつて一度として統一国家であることが失われたり、異民族の実質的支配を受けたりしたことはなかった。日本は朝鮮が日本と唇齒の関係にあることを自覚していると称して、1895年日清戦争の結果、韓国の独立を率先して承認した。そしてイギリス、アメリカ、フランス、ドイツ、ロシアなどの諸国も、独立を承認しただけではなく、これを保全することを約束した。韓国もまたその恩義を感じ、諸般の改革と国力の充実を鋭意図ったのである。当時ロシアの勢力が南下し、東洋の平和と韓国の安寧を脅かしたので、日本は韓国と攻守同盟を結んで日露戦争を始めたが、東洋の平和と韓国の独立保全が実にこの同盟の主旨であった。ここにおいて、韓国はいよいよその好誼を感じ、陸海軍の作戦上の援助はできなかつたものの、主権の威儀までをも犠牲にし、およそ可能な限りの義務をつくして、東洋の平和と韓国独立の二大目的を追求したのであった。しかしその戦争が終結し、当時のアメリカ大統領ルーズベルトの仲裁で講和会議が開かれると、日本は同盟国である韓国の参加を許さず、露日両国の代表の任意で日本の韓国への宗主権を議定した。日本はその優越した兵力によって、韓国の独立を保全するという旧約に違反し、暗弱であった当時の韓国皇帝および政府を脅かし、「韓国の国力充実によって独立が得られる時期まで」という条件によって韓国の外交権を奪い、これを日本の保護国とした。そして、韓国に世界列国と直接交渉する道を断たしめ、「相当の時期まで」という条件によって司法、警察権を奪った。さらに「徵兵令実施まで」という条件で軍隊を解散させ、民間の武器を押収し、日本の軍隊と憲兵警察とを各地に配置した。甚だしくは、皇宮の警備までも日本の警察を用いるまでになった。このようにして、ついに韓国を全くの無抵抗者にしながら、明哲な韓国皇帝を放逐すると皇太子を擁立し、日本の走狗としていわゆる合併内閣を組織し、ついに秘密と武力とをもって合併条約を締結した。ここにわが民族は建国以来半万年にして、自己を指導し援助すると約束した日本軍閥の野心的政策の犠牲となつたのである。

実に日本の韓国にたいする行為は、詐欺、暴力によるものであり、実にこのような偉大なる詐欺による成功は、世界興亡史上特筆すべき人類の大恥辱といわねばならない。

保護条約を締結する際に、皇帝と賊臣を除く数人の大臣はあらゆる反抗手段をつくし、その発表の後も全国民はみな素手でもって可能な限り反抗した。司法、警察権が奪われ、軍隊が解散した時も同じように反抗した。合併の際には、手中に寸鉄の武器を持たなかつたにもかかわらず、可能な限りの反抗運動を試みたが、精銳な日本の武器により犠牲となつた者は数知れない。以後10年間、独立を回復しようとした運動で犠牲となつた者は数十万に達し、かの惨酷な憲兵政治下において、手足と口舌の自由を奪われながらも、独立運動は絶えることなく続けられた。こうしたことからも、韓日合併は朝鮮民族の意思によるものではないこと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に、わが民族は日本の軍国主義的野心による詐欺暴力のもとに、わが民族の意思に反する運命におかれました。それ故に、正義をもって世界を改造するこの時にあたり、その匡正を求めるることは当然の権利であり、また世界改造の主人公であるアメリカ、イギリスは、保護と合併にたいし率先して承認したという理由によって、今日その旧悪を贖う義務がある。

また合併以来の日本の統治政策をみると、かの合併当時の宣言に反して、わが民族の幸福と利益を無視し、征服者が被征服者に対するような古代の非人道的な政策を用い、わが民族にたいし参政権、集会・結社の自由、言論・出版の自由などを一切許さず、甚だしくは信教の自由、企業の自由に至るまでも拘束している。行政、司法、警察などの諸機関が朝鮮民族の人権を侵害し、公的にも私的にもわが民族と日本人との間に優劣の差別を設け、わが民族には劣等の教育を施し、永遠にわ

が民族を日本人の使役者にしようとしている。歴史を書き改め、わが民族の神聖な歴史的、民族的伝統と威儀を破壊し、侮蔑している。少数の官吏を除いて、政府の諸機関、交通、通信、兵備などの諸機関の全部あるいは大部分には日本人のみを用い、わが民族には永遠に国家生活の智能と経験を得る機会を与えないようにしている。わが民族は、このような武断專制の不正、不平等の政治のもとでは、決してその生存と発展を享受することができない。それだけではない。人口過剰の朝鮮に無制限の移民を奨励し、土着のわが民族が海外に流離するのをやむなくさせた。また政府の各機関はもちろん、私設の諸機関にまでもことごとく日本人を用いることで、一方ではわが国民の職業を失わせて、また一方ではわが国の富源を日本に流出させた。また商工業においても日本人に対してのみ特殊な便益を与え、わが民族にはその産業的発展の機会を失わせた。このように、あらゆる方面でわが民族と日本人との間の諸般の利害は互いに相反し、その害を受くるのはわが民族である。故に、わが民族は生存の権利のために独立を主張するのである。

最後に東洋平和の見地からみても、かの最大の脅威であったロシアはすでにその軍国主義的野心を放棄し、正義と自由に基づいた新国家を建設しようとしており、中華民国もまた同様である。さらに、今後国際連盟が実現すれば、再び軍国主義的侵略を敢行する強国は現れないだろう。そうだとすれば、韓国を合併した最大の理由はすでに消滅している。これより、もし朝鮮民族が無数の革命の乱を起こすとすれば、日本に合併された韓国は却って東洋平和を乱す禍根となるであろう。わが民族は正当な方法によってわが民族の自由を追求する。もしこれが成功しなければ、わが民族は生存の権利のために自由な行動をとり、最後の一人に至るまで必ずや自由のために熱血をそそぐであろう。これがどうして東洋平和の禍根とならないであろうか。わが民族は兵を持たない。わが民族は兵力をもって日本に抵抗する実力はない。しかしながら、もし日本がわが民族の正当な要求に応じなければ、わが民族は日本に対し永遠の血戦を宣戦せざるを得ない。

わが民族は高度の文化をもってからすでに久しい。そしてまた半万年にわたる国家生活の経験をもっている。たとえ多年の専制政治の害毒と境遇の不幸がわが民族の今日を招いたものであるにせよ、今日より正義と自由とともにとづく民主主義的先進国の範に従って新国家を建設するならば、わが建国以来の文化と正義と平和を愛好するわが民族は、必ずや世界の平和と人類の文化に対し貢献するであろう。

ここにわが民族は日本および世界各国に対し、わが民族に自決の機会を与えることを要求する。もしその要求が受け入れられなければ、わが民族はその生存のために自由行動をとることで、わが民族の独立を期成せんことをここに宣言する。

1919年2月8日

朝鮮青年独立団代表

崔八鏞 尹昌錫 金度演 李琮根 李光洙 宋繼白 金皓壽 崔謹愚 白寬洙 金尚德 徐椿

決議文

- 一、 本団は、韓日合併がわが民族の意思によるものでなく、わが民族の生存と発展を脅かし、また東洋の平和を乱す原因となっていることを理由に、わが民族の独立を主張する。
- 二、 本団は、日本の議会と政府に対し朝鮮民族大会を召集し、その大会の決議をもってわが民族の運命を決定する機会を与えられんことを要求する。
- 三、 本団は、万国平和会議における民族自決主義をわが民族にも適用せんことを請求する。右の目的を達するために、日本に駐在する各国大使、公使にたいし、本団の意思を各自の政府に伝達することを要求し、同時に委員二人を万国平和会議に派遣する。右の委員は既に派遣したわが民族の委員と一致行動を取る。
- 四、 前項の要求が失敗した時は、わが民族は日本に対し永遠の血戦を宣言する。これによって生ずる惨禍については、わが民族はその責任を負わない。

# “2·8独立宣言”記念式典에 바치는 献詩

李 容 相

一九一九年 二月八日

그렇치

그때 우리에게는 左도 右도 없었다.

祖上으로부터 물려 받은땅

그 빼앗긴땅에 봄을 찾고저

三·一節에 앞서 봉화를 올린

피끓는 님들의

意志와 勇氣를

우리 記憶 하리라.

기리 称頌 하리라.

一九一九年 二月八日

그때 祖國은 빼앗기고 없었다.

원수들은 三千里 江山에

狂馬처럼 날뛰고 짓밟고

송두리채 앗아갔다.

그리하여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살륙과 약탈의 現場으로 내락했으니

이땅에는 永永

太陽은 않솟는 것이냐!?

아 아 絶望이여 !

기나긴 暗黑이여 !

이토록 이토록

真正 !!

우리에게는 흐미한 한줄기

빛마저도 없단 말인가!?

真正 없단 말인가!?

아니다 귀를 기우리라

숨을 죽이고 저소리 들으라

敵都 東京에서 우리 留学生들이

분주히 오고가는

저발지육 소리 있지 않느냐.

憤怒의 숨결을 모라쉬고 있지 않느냐.

来日의 荣達보다도

오늘의 屈辱에서

来日의 自由보다도

오늘의 壓制에서

박차고 나아가야 된다는

젊은 예지와 闘志는

決死의 혼이 되었다.

우리의 要求가 失敗될 時에는

日本에 對하여

永遠한 血戰을 선포하겠노라고

二·八朝鮮獨立을 宣言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二·八宣言은

三·一運動을 불러일으켰고

三·一運動은 다시

“臨時政府”를樹立케 하였으니

壯했도다 ! 二·八宣言 !

壯嚴했도다 !

우리朝鮮 YMCA 東京現場이여 .

이날이 되면

이날이 오면

빼앗긴땅에 봄을 찾고저

외치고 일어섰던 님들이 그리워

우리는 가슴뜨겁고 피가 맑아지는 것을.

가슴뜨겁고 피가 맑아지는 것을.

이거야 !

이거야 !

어찌하랴.

一九一九年 二月八日…….

## 宣言書

金朝鮮青年獨立國是一千萬朝鮮民族言化表  
正義外自由의勝利是得此世界萬國의前에獨立을期  
成하기를宣言하오

四十三百年의長久歴史是有其各族은實至世界最  
古文明民族의 이라비록有時乎支那의正朔을奉起事  
는有其本是此之朝鮮皇室外支那皇室과의形式의外交  
의關係에不過乎豈又朝鮮之愾帝各族의朝鮮이又一次互  
統一之國家是失하고異族의實質의支配를受起事無可  
日本名朝鮮<sup>朝鮮</sup>而日本外辱此齒의關係가有其本의  
味一千八百九十五年日清戰爭의結果且日本이韓國의獨  
立을率先承认하고英米法德俄等諸國이獨立  
承認할是이리此是保全하기를約束하였도니韓國之恩  
義<sup>義</sup>感<sup>感</sup>하<sup>하</sup>鏡臺<sup>鏡臺</sup>至諸般改革<sup>改革</sup>한국力의<sup>의</sup>龍寶<sup>龍寶</sup>을圖<sup>圖</sup>하<sup>하</sup>而<sup>而</sup>當<sup>當</sup>時<sup>時</sup>俄國이<sup>이</sup>南下<sup>下</sup>外<sup>外</sup>東洋<sup>東洋</sup>斗争<sup>斗争</sup>하고外<sup>外</sup>韓國의安寧<sup>安寧</sup>을  
威<sup>威</sup>脅<sup>胁</sup>하<sup>하</sup>日本이<sup>이</sup>韓國<sup>韓國</sup>父子周<sup>周</sup>體<sup>體</sup>을<sup>을</sup>缔<sup>缔</sup>하<sup>하</sup>며俄戰爭<sup>俄戰爭</sup>을<sup>을</sup>觸<sup>觸</sup>  
일<sup>일</sup>東洋<sup>東洋</sup>外<sup>外</sup>平<sup>平</sup>하고外<sup>外</sup>韓國<sup>韓國</sup>의獨立<sup>獨立</sup>保全<sup>保全</sup>은<sup>은</sup>實<sup>實</sup>此同盟의主旨<sup>主旨</sup>外<sup>外</sup>韓國  
을<sup>을</sup>由<sup>由</sup>此<sup>此</sup>好<sup>好</sup>誼<sup>誼</sup>이<sup>이</sup>感<sup>하</sup>하<sup>하</sup>陸<sup>陸</sup>海<sup>海</sup>軍<sup>軍</sup>이<sup>이</sup>作<sup>作</sup>戰<sup>戰</sup>하고<sup>하고</sup>助<sup>助</sup>不能<sup>하</sup>하<sup>하</sup>이<sup>이</sup>  
主權<sup>主權</sup>外<sup>外</sup>威<sup>威</sup>嚴<sup>嚴</sup>外<sup>外</sup>犧牲<sup>犧牲</sup>하<sup>하</sup>可<sup>能</sup>社<sup>社</sup>義<sup>義</sup>務<sup>務</sup>이<sup>이</sup>하<sup>하</sup>이<sup>이</sup>東<sup>東</sup>洋<sup>洋</sup>平<sup>平</sup>  
和<sup>和</sup>外<sup>外</sup>韓國<sup>韓國</sup>獨立<sup>獨立</sup>의<sup>의</sup>達<sup>求</sup>하<sup>하</sup>이<sup>이</sup>5·1<sup>5·1</sup>及<sup>及</sup>其<sup>其</sup>戰爭<sup>戰爭</sup>이<sup>이</sup>終<sup>終</sup>  
結<sup>結</sup>하고<sup>하고</sup>當時<sup>當時</sup>米<sup>米</sup>國<sup>國</sup>大<sup>大</sup>統領<sup>統領</sup>트<sup>트</sup> 병<sup>병</sup>트<sup>트</sup> 氏<sup>氏</sup>의仲裁<sup>仲裁</sup>豆<sup>豆</sup>曰<sup>曰</sup>俄間<sup>俄間</sup>講<sup>講</sup>和<sup>和</sup>

## 2・8独立宣言書



宣言發表当時の  
YMCA会館

## 2 · 8 독립선언

이용상 작시 안영수 작곡

## 在日本韓国 YMCA

<http://www.ayc0208.org>

東京韓国 YMCA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神田猿楽町 2-5-5  
電話 03-3233-0611 FAX03-3233-0633  
info@ayc0208.org

関西韓国 YMCA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 3-14-15  
電話 06-6981-0781 FAX06-6981-0782  
kansai@ayc0208.org